

청소년과 부모의 지역감정 관계에 관한 연구

-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

Regional Antagonis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in the Youngnam Region

민하영(Ha-Yeoung Min)¹⁾

공인숙(In-Sook Kong)²⁾

ABSTRACT

Antagonism between the Youngnam and Honam regions of Korea as expressed by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was studied in 167 parent-adolescent pairs (total 334) of Youngnam residents. Adolescents were middle school students 71 (42.5%) and high school students 96 (57.5%), 90 boys (53.9%), 77 girls (46.1%). The instruments were subjects' self-reported social distance and stereotypes. Data were analyzed by t-test, paired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Major findings were that : (1) adolescents' social distanc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adolescent and parent negative stereotypes. (2) Adolescent positive/negative stereotyp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arent positive/negative stereotypes. (3) Adolescent negative stereotypes exerted an indirect effect on social distance, controlled by parents' negative stereotypes.

Key Words : 지역감정(regional antagonism),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 고정관념(stereotype), 부모-청소년(parent-adolescent), 반편견(anti-bias).

I. 서 론

편견이란 적절한 사전지식, 사고, 이성 등이 없는 상태에서 외부 사물에 대해 가지게 되는 호

오(好惡)의 태도나 의견 또는 감정을 말한다(Jones & Derman-Sparks, 1992). 또한 내가 속하지 않은 외집단에 대한 신념으로, '내가 속한 집단과 외집단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 할

¹⁾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조교수

²⁾ 순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in, Ha-Yeoung, Child Studies, Catholic Univ. of DaeGu, 330 Kumlak-1ri, Hayang-up, Kyeongsan-si, Gyeongbuk 706-763, Korea
E-mail : hymin@cu.ac.kr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견은 선입견, 고정관념과 마찬가지로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나 호의적 감정보다 배척적 태도나 거부적 감정으로 표현되기 쉽다(안신호, 1988). 따라서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내가 속하지 않은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외집단에 대해 느끼는 편견이나 고정된 시각은 외집단에 대한 정보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일반적으로 편견이나 고정관념 특히 부정적 고정관념은 외집단 성원의 부정적 행위를 더 잘 기억하도록 만들 뿐 아니라, 편견이나 부정적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외집단 성원의 부정적 행위에 대해 보다 내적이며 보다 기질적인 특성으로 귀인하도록 만든다(Bodenhausen, 2005; Crocker, Hannah, & Weber, 1983). 이러한 특성 때문에 편견이나 부정적 고정관념은 외집단인의 부정적 행위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더 큰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차별적 행동을 발달시키게 된다(김혜숙, 1988, 1993; Hugenberg & Bodenhausen, 2003; Klein & Azzi, 2001). 편견이나 부정적 고정관념이 유발하는 이와 같은 사회적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는 반편견 교육 등을 통해 사회 안에서 형성될 수 있는 편견이나 부정적 고정관념을 예방하고 중재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기존의 선입견, 고정관념 및 편견에 도전하고 대처함으로써 편견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모순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반편견 교육 활동에서는 성별, 인종, 종교, 외모 등을 반편견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박해미·정종원, 2000; 최연자·이영석, 2001). 그러나 우리사회의 경우 성별이나 인종 또는 종교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반편견 대상은 지역감정이라 할 수 있다. 지역감정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역

감정은 정치적인 신념체계가 현실적인 지배집단의 이해관계를 매개로 하여 표출되는 상호모순을 말하는 지역갈등(홍기용, 2001)이나, 지역성에 근거한 집단의식으로서 지역 집단별 정체감이나 그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적 자긍심이나 우월의식 그리고 피해의식으로 나타나는 지역의식 및 지역차별의 성향이 개인적 수준을 넘어서 국가적,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지역개발 등에 개입된 결과를 의미하는 지역격차(김홍석, 1989) 등의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지역감정은 지역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지역 반목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지역감정 중 영호남 간 지역감정은 우리사회 내 대표적 지역감정으로 반편견의 주요 대상이라 할 수 있다(김범준, 2002; 김진국, 1987; 박군석·한덕웅, 2003; 정기선, 2005).

반편견 대상으로서의 영호남간 지역갈등은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연구(김종호, 1993; 정기선, 2005; 지충남·오관석, 2006; 홍기용, 2001)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영호남간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노력은 정치적, 사회적 측면 등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됨으로써 자녀의 양육과 교육이라는 미시적 측면에서의 접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치와 신념이 부모에 의해 형성됨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의 지역감정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될 뿐 아니라 직, 간접 경험에 의해 강화되어 발생됨(조경근, 1987; 허정경·이장우, 2002)을 고려해 볼 때 자녀의 지역감정은 부모의 지역감정과 유관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지역감정의 극복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모와 자녀관계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 지

역감정의 문제를 부모-자녀간 관계에서 접근한 연구는 없다. 다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감정의 세대 간 전이를 대학생 세대와 부모 세대로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김혜숙, 1988)가 있을 뿐이다. 지역감정의 부모-자녀간 관계 연구가 지역감정의 반편견 교육이나 지도에서 부모의 역할과 활동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역감정을 살펴보는 연구는 실용적 측면에서 필요하다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감정이 구체화되기 시작함으로써 반편견 교육이나 양육이 보다 본격적으로 요구되는 중,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지역감정을 그들의 부모와 쌍을 이루어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감정에 관한 선행연구가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측면에서 지역감정을 각각 접근(김혜숙, 1988; 나간채, 1990; 이소영·정철희, 2003; 정기선, 2005)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지역감정을 행동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거리와 인지적 측면에서의 고정관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거리는 내/외집단들간에 존재하는 심리적 거리감을 말하는 것(이소영·정철희, 2003)으로, 외집단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최준영·김순홍, 2000). 사회적 거리와 관련하여 영호남 지역인들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보다 외집단에 대해 보다 강한 사회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나간채, 1990).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호남 지역의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공인숙·민하영, 2006)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영호남 지역인을 대상으로 내외집단의 사회적 거리감만을 확인하고 있을 뿐 사회적 거리에 미치는 변인 규명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감을 고정관념과 연결시켜 살펴보는

것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변인 규명 측면에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고정관념은 외집단인에 대해 가지는 고정된 생각이나 인식으로, 신념이나 믿음의 인지적 요인을 의미하는 것이다(안신호, 1988). 신념이나 믿음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근원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전경숙, 1991)을 고려해 볼 때 인지적 요인인 고정관념은 사회적 행동 요인인 사회적 거리감에 선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을 청소년 자신의 고정관념과 부모의 고정관념과 연결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외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청소년 자신의 사회적 거리감 뿐 아니라 부모의 고정관념과도 연결시켜 살펴보는 것은 지역감정의 세대 간 전이가 기존 연구(김혜숙, 1988)를 통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감정의 사회화를 지적하는 연구의 결과(김혜숙, 1988; 조경근, 1987; 허정경·이장우, 2002)는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뿐 아니라 고정관념 등 지역감정을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 등 고정관념과 연결시켜 살펴보는 것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 사회적 거리감을 청소년 자신의 고정관념 및 부모의 고정관념 관계에서 살펴볼 뿐 아니라 청소년의 고정관념을 부모의 고정관념 관계에서 살펴보는 것은 논리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호남지역 청소년에 앞서 영남지역 청소년의 지역감정을 우선 다루기로 하였다. 지역감정과 관련하여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지역감정보다 영남인의 호남인에 대한 지역감정이 더 배타적인 것으로 보고(나간채, 1990; 정기선, 2005)되고 있음은 지역감정에 관한 반편견 교육이나 양육활동이 영남지역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의 설정을 통해 영남지역 청소년의 지역감정을 부모와의 관계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 <연구문제 1> 영남지역 청소년의 호남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호남지역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의 고정관념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영남지역 청소년의 호남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은 호남지역에 대한 부모의 고정관념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영남지역 청소년의 호남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과 부모의 고정관념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과 그 부모로 청소년-부모 167쌍 총 334명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대상 중 청소년은 139명(83.2%), 아버지는 148명(88.6%), 어머니는 145명(86.8%)가 고향이 경북으로 연구대상 대부분이 영남지역에서 생활해 왔다. 연구대상 청소년 중 중학생은 71명(42.5%), 고등학생은 96명(57.5%)이었으며 남학생은 90명(53.9%), 여학생은 77명(46.1%)이었다. 아버지 중 71명(42.5%)은 고졸이하, 89명(53.3%)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9명(4.2%) 결측치). 어머니 중 111명(66.5%)이 고졸이하, 52명(31.1%)이 전문대 이상의 학력 소지자였다(4명(2.4%) 결측치).

<표 1> 연구대상 청소년과 부모의 고향 분포

고향	청소년	아버지	어머니
서울	3(1.8)	2(1.2)	5(3.0)
경기	6(3.6)	4(2.4)	4(2.4)
충청	0(0.0)	2(1.2)	4(2.4)
강원	2(1.2)	5(3.0)	0(0.0)
경상	139(83.2)	148(88.6)	145(86.8)
전라	1(0.6)	1(0.6)	4(2.4)
제주	0(0.0)	0(0.0)	1(0.6)
결측	16(9.6)	5(3.0)	4(2.4)

2. 연구척도

1) 사회적 거리감

지역감정의 행동적 요소인 영, 호남 지역 출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Killen, Lee-Kim., McGlothlin, & Stangor, 2002)를 토대로 7개의 사회적 거리감 문항을 개발하였다. 문항은 타인을 자신의 생활 속으로 얼마나 가깝게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이나 이웃, 친교 활동 중에 흔히 경험하는 채팅, 영화관람, 수련회 등의 상황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 “같은 날 함께 전학 온 경북 안동 아이와 전남 광주 아이 그리고 충남 대전 아이 중 짝을 선택하라면 우선 누구를 고르겠는가?”와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가장 먼저 선택된 경우에 1점, 두 번째로 선택된 경우에 2점, 마지막에 선택된 경우에 3점을 부여한다. 이 때 점수가 높을수록 거리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응답 범위는 7-21 점이며,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영남지역 .61, 호남 지역 .65로 나타났다.

2) 고정관념

지역감정의 인지적 측면인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김진국(1987), 김혜숙(1993), 송관재·이훈구(1991) 등의 연구에서 나타난 호남지역에 대한 고정관념 특성들을 토대로 하여 29개의 특질형용사를 선정하였다. 각각의 특질형용사에 대해 전라도 사람이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긍정적 의미를 지닌 14개 형용사는 긍정적 고정관념으로, 부정적 의미를 지닌 형용사 15개는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측정하였다. 응답가능 범위는 긍정적 고정관념의 경우 14-56점, 부정적 고정관념은 15-7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부정적 고정관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고정관념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는 각각 .77, .82 로 나타났다. 부정적 고정관념은 부모 .82, 자녀 .83의 문항간 일치도에 의한 Cronbach's α 값을 나타냈다.

3. 자료 수집 절차 및 자료 분석

대구경북지역 소재 중고등학교 10명과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 5명 및 중고교 교사 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 조사용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

사는 연구목적의 설명을 통해 연구자료 수집을 허락받은 대구 경북지역내 중 고등학교 4개교에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청소년용과 부모용으로 구분되었다. 청소년용 질문지는 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숙지한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배포 후 응답기재하도록 하였으며 부모용 질문지는 학생을 통해 가정으로 전달된 후 응답기재하도록 하였다. 응답기재된 청소년용 질문지는 교실에서 수거하였으며, 부모용 질문지는 배포 후 4일간의 기간 여유를 두고 수거하였다.

수거된 질문지 중 청소년과 부모가 부실기재한 경우 그리고 부모가 아닌 가족이 응답한 경우, 청소년과 부모가 짝을 이루지 못한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질문지가 분석에서 누락되었다. 분석에 이용된 자료는 청소년과 부모가 짝을 이룬 총 167쌍 334명의 자료만이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 중 t 검증, 쌍체 t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위계적 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p < .05$ 유의수준에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종속변인으로 사용

〈표 2〉 학년과 성별에 따른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과 고정관념

변 인	집단구분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긍정적 고정관념	부정적 고정관념
학년	중2(71)	16.72(2.53)	36.89(6.00)	37.47(6.50)
	고1(96)	16.61(2.95)	37.74(5.77)	37.99(6.83)
t 값		.25	-.89	-.48
성별	남(90)	16.44(2.87)	37.64(6.44)	37.48(7.19)
	녀(77)	16.89(2.64)	37.07(5.07)	38.13(6.03)
t 값		-1.04	.60	-.61

될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및 긍정적 고정관념, 부정적 고정관념을 학년과 성별에 따라 *t*검증하였다. <표 2>의 분석 결과와 같이 학년과 성별에 따라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학년과 성별 효과의 통제없이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 영남지역 청소년의 호남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청소년과 부모의 고정관념간 관계

영남지역 청소년의 호남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청소년과 부모의 고정관념간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쌍체 *t*검증을 통해 영남 지역 청소년의 호남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영남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표 3>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구분(n=160)	사회적 거리감 평균(SD)	쌍체 <i>t</i> 값
영남지역(내집단)	10.20(2.79)	-16.62***
호남지역(외집단)	16.66(.276)	

주) ****p*<.001

<표 3>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영남 지역 청소년의 호남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영남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남지역 청소년의 호남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과 부모의 고정관념간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호남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은 호남 지역에 대한 청소년(*r*=.227, *p*<.01)과 부모(*r*=.253, *p*<.01)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각각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호남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부정

<표 4>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 지역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과 호남지역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고정관념 (N=156)

	호남지역에 대한 고정관념	영남지역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청소년	긍정적 고정관념	-.032
	부정적 고정관념	.227**
부 모	긍정적 고정관념	-.093
	부정적 고정관념	.253**

주) ***p*<.01

적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그리고 호남지역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호남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2>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과 부모의 고정관념간 관계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과 부모의 고정관념간 관계를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통해 살펴본 결과, <표 5>에서 나타나듯이 호남지역에 대한 부모-청소년의 고정관념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호남지역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호남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긍정적 고정관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287, *p*<.001). 이와 반대로, 호남지역에 대

<표 5>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부모와 청소년의 고정관념간 관계

	청소년의 긍정적 고정관념	청소년의 부정적 고정관념
부모의 긍정적 고정관념	.287***	.003
부모의 부정적 고정관념	.143	.291***

주) ****p*<.001

<표 6>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부모-청소년의 고정관념 차이

구분	고정관념 평균(SD)	쌍체 t값
부모 긍정-청소년 긍정(n=137)	38.21(4.86)	1.49
	37.38(5.98)	
부모 부정-청소년 부정(n=136)	37.38(6.30)	-1.84
	38.53(5.89)	

한 부모의 부정적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호남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부정적 고정관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291, p<.001$).

호남지역에 대한 부모-자녀간 고정관념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부모-자녀간 고정관념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표 6>에서 나타나듯이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고정관념은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호남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간에 큰 차이 없이 유사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의 고정관념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모가 지니는 감정과 상당히 유사함을 의미하는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고정관념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부모로부터 전이되고 있음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연구문제 3> 영남지역 청소년의 호남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과 부모의 고정관념간 관계

영남지역 청소년의 호남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영남지역 청소년과 부모의 고정관념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영남지역 청소년의 호남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종속변인으로 하

고, 영남지역 청소년과 부모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으로 부정적, 긍정적 고정관념 중 청소년과 부모의 부정적 고정관념만을 각각 선정한 것은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이 청소년과 부모의 부정적 고정관념과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문제 1>의 <표 4>에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영남지역 청소년의 호남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청소년과 부모의 부정적 고정관념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시, 1단계에서는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부모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이는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과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의 부정적 고정관념간의 관계를 부모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통제된 상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독립변인으로 투입된 부모와 청소년의 호남지역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연구문제 2>의 <표 5>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VIF=1.07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한편 D-W 계수가 1.88로 오차항간의 상관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중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분석결과 <표 7>에서와 같이,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은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의 부정적 고정관념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2, p<.05$). 그러나 2단계에서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부모의 부정적 고정관념을 통제했을 때,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은 호남지역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고정관념에 의해서만 설명($\beta=.21, p<.05$)

〈표 7〉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과 청소년과 부모의 부정적 고정관념간 관계

단계	독립변인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		R ²	ΔR ²	F값(df)
		B	β			
1단계	상수	13.40(1.34)		.05		6.32* (1,128)
	호남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부정적 고정관념	-.09(.04)	.22*			
2단계	상수	10.48(1.80)		.09	.04	6.15** (2,127)
	호남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부정적 고정관념	-.07(.04)	.16			
	호남지역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고정관념	-.10(.04)	.21*			

주) * $p < .05$ ** $p < .01$

될 뿐 호남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부정적 고정관념에 의해 더 이상 유의하게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대구 경북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영남지역 청소년과 그의 부모 167쌍 총 334명을 대상으로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의 지역감정을 부모와의 관계에서 살펴본 이 연구는 SPSS 12.1의 t검증, 쌍체 t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위계적 중회귀분석을 통해 유의수준 $p < .05$ 에서 분석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영남지역 청소년은 외집단인 호남지역 사람에 대해 내집단인 영남지역 사람보다 사회적 거리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 이는 내집단에 대해 호의적이며 선호적일 뿐 아니라 더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김범준, 2002; Mullen, Dovidio, & Copper, 1992)를 지지하는 것

으로, 영남지역 청소년의 일상생활 안에 호남지역 사람을 가깝게 받아들임에 있어 영남지역 사람과 차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의 부정적 고정관념이 클수록, 또는 호남지역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고정관념이 클수록, 호남지역 사람에 대해 보다 더 배타적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심리적 거리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영남지역 청소년의 호남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호남지역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의 부정적 고정관념의 완화나 극복을 통해 좁혀지거나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영남지역 청소년의 호남지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는 호남지역인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정도(최준영 · 김순홍, 2000)를 의미하는 것으로, 호남지역인에 대해 가지는 청소년 자신의, 또는 부모의 편견된 부정적 생각이나 믿음이 적어질 때 간격이 좁아질 수 있음을 함의하는 것이다.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이 청소년 자신 뿐 아니라 부모의 고정관념에 의해

영향받는다. 이는 사실은 지역감정에 대한 청소년
반편견 교육 활동에서 청소년뿐 아니라 교육을
통한 부모의 적극적 지원 역할이 중요함을 제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의 부
정적 고정관념은 호남지역에 대한 부모의 부정
적 고정관념이 클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
편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과 부모의
고정관념 차이는 유사 할 만큼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 부모-청소년간에 나타나는 고정관
념의 세대간 관련성과 유사성을 입증한 <연구문
제 2>의 결과는 지역감정이 세대간 전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 연구(김혜숙, 1988)를 경험적 자
료를 통해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남지
역 청소년의 호남지역에 대한 지역감정이 호남
지역에 대한 부모의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는 연구 결과는 지역감정에 관한 반편견 활동에
서 부모-청소년의 통합 교육 및 부모의 부정적
고정관념의 적극적 극복 노력이 함께 요구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호남지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의 사
회적 거리감은 청소년의 부정적 고정관념에 의
해 영향받지만 부모의 고정관념에 의해 통제된
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3>의 결과는 호남지
역에 대한 영남지역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이
청소년 자신의 호남지역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
념보다 부모의 호남지역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
념에 의해 보다 유의하게 설명될 수 있음을 나타
내고 있다. 이는 호남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부정
적 고정관념이 호남지역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고정관념에 의해 통제 될 만큼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영남
지역 청소년의 일상생활 안에 호남지역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보다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호남지역에 대한 영

남지역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는 호남지역에 대
한 청소년의 부정적 고정관념에 관한 반편견 교
육을 통해서만 좁혀질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없
는 것이다. 호남지역에 대한 청소년의 사회적 거
리는 호남지역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고정관념
에 관한 교육이 병행되어질 때 보다 좁혀 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감정은 대선이나 총선 등 정치적 이슈 때
마다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지적
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감정의 문제는 발제적 수
준에서 머물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역
감정의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매우 제한
적이라 할 수 있다. 영호남 대학생 교류행사나
문화교류 또는 지역간 균형 발전 등이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안되어 왔으나 보다 지속적인 효과
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교육활
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추상적인 개념이나 가설적 상황에서의 이해
력이 높아짐으로 인해 사회적 사건이나 문제에
대한 평가에서 새로운 추론을 사용하게 시작하
는 시기의 청소년(Turiel, 2002)을 대상으로 반편
견 교육활동이 모색된다면, 보다 반응적이며 장
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조영남의 노래 '화개장터'가 영호남간 지역감정
을 완화시키려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작은 노력
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지역감정에 관한 반편견
교육 활동 구성은 교육적 측면에서의 또 다른 노
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 연구는 영남지역의 청소년과 그 부모만을
대상으로 영호남간 지역감정을 다룸으로써 연구
의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제
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과 부모를 한
쌍으로 하여 청소년의 지역감정을 부모와의 관
계에서 살펴봄으로써, 지역감정에 관한 반편견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방향과 기본 내용을 제안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주 관심 주제였던 외집단에 대한 내집단의 지역감정 연구에서 보다 발전하여, 상위 고정관념(meta-stereotypes)에 대한 연구에도 관심을 갖기 바란다. 상위 고정관념이란 외집단이 내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는 내집단인의 고정관념을 의미하는 것이다(Klein & Azzi, 2001). 영남인의 입장에서 호남인들이 영남인에 대해 갖고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나 호남인의 입장에서 영남인들이 호남인에 대해 갖고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의 탐색 연구는 지역감정을 쌍방향 측면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반편견 교육의 균형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인숙·민하영(2006). 영·호남지역 아동 및 청소년의 지역감정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1), 159-167.
- 김범준(2002). 사회적 범주화가 지역감정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6(1), 1-18.
- 김종호(1993). 현대 한국에서의 지역감정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 서울시 거주 지역 출신 주민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국(1988). 지역감정의 실상과 그 해소 방안.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79-101.
- 김혜숙(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실상-세대간 전이가 존재하는가?.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37-62.
- 김혜숙(1993). 지역고정관념이 귀인판단과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7(1), 53-70.
- 김홍석(1989). 지역감정의 사회학적 이해.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간채(1990). 지역민간의 사회적 거리감.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의 지역주의와 지역갈등**. 서울 : 성원사.
- 박근석·한덕웅(2003). 영호남인의 사회구조 요인 지각과 사회정체성이 상대박탈과 집합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7(2), 59-72.
- 박해미·정종원(2000). 반편견 교육과정의 적용 : 이혼 개념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0(4), 127-147.
- 소순창(2001).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지역주의와 정당 투표 : 긍정적 투표와 부정적 투표. 2001년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7-136.
- 송관재·이훈구(1991). 특질유사성 측정 방법이 특질의 지각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6(1), 32-46.
- 안신호(1988). 집단 고정관념 형성에 있어서의 감정과 지성의 효과.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움 심리학에서 본 지역감정, 3-36.
- 이소영·정철희(2003). 전통적 가치와 지역감정. **한국사회학**, 37(5), 31-54.
- 전경숙(1992).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 및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기산(2005). 지역감정과 지역갈등인식의 변화 : 1988년과 2003년 비교. **한국사회학**, 39(2), 69-99.
- 조경근(1987). 정치사회화의 시각에서 본 영호남 간의 지역감정의 실재와 악화 및 그 해소. 한국정치학회 제7회 합동학술대회논문집, 107-126.
- 지충남·오관석(2006). 호남 중, 도시민의 지역편견에 대한 고찰. **대한정치학회보**, 14(2), 21-50.
- 최연자·이영석(2001). 사연있는 인형을 활용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장애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22(3), 195-209.
- 최준영·김순홍(2000). 지역간 거리감을 통해서 본 지역주의 실상과 문제점. **사회연구**, 1, 65-95.
- 허정경·이장우(2002). 유아교육기관의 반편견 교육에

- 대한 인식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7(2), 207-221.
- 홍기용(2001). 지역주의와 지역 갈등 요인에 관한 고찰 : 영,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3(3), 81-94
- Bodenhausen, G. V. (2005). The role of stereotype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Medical Decision Making*, 25, 112-118.
- Crocker, J. Hannah, D. B., & Weber, R. (1983). Person memory and causal attribution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55-66.
- Hugenberg, K., & Bodenhausen, G. V. (2003). Facing prejudice : Implicit prejudice and the perception of facial threat. *Psychological Science*, 14, 640-643.
- Jones, E., & Derman-Sparks, L. (1992). Meeting the challenge of diversity. *Young Children*, 72, 12-18.
- Killen, M., Lee-Kim, J., McGlothlin, H., & Stangor, C. (2002). How children and adolescents evaluate gender and racial exclus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7(4, Serial No. 271).
- Klein, O., & Azzi, A. E. (2001). The strategic confirmation of meta-stereotypes : How group members attempt to tailor an out-group's representation of themselves. *British J. of Social Psychology*, 40, 279-294.
- Mullen, B., Dovidio, J. F., & Copper, C. J.(1992). In-group-out-group differences in social proje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8(5), 422-440.
- Turiel, E. (2002). *The culture of morality*.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년 4월 30일 투고 : 2007년 7월 25일 채택